

고 하였는데 이것은 앞으로 다른 기회를 얻어야 하겠고 우선 이곳에서
 現存最古의 遺品으로 推定되는 이 新出現의 一小斷石片을 紹介하면
 그 收拾을 多幸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이 같은 石製相輪의 樣式이 또한
 우리의 石塔發生의 事由와 그 始源樣式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百濟國에
 서 木塔系樣式을 繼承하였을 것으로 생각함이 順理일 것이며 그러한 觀
 點에서 이 新資料의 考察은 内外古代塔婆에서 先行하던 金屬製 相輪樣
 式과도 比較되어야 할것을 거듭 말하여 두고저하는 바이다. 끝으로 이
 遺物收拾에 配屬한 扶餘의 李夕湖 池與龍 兩氏와 扶餘博物館에 感謝하
 는 바이다. (相輪直徑(復元)一·七七尺 方孔一邊四·二寸 厚三·五)

註一 이 露盤伏鉢形은 一石造(現在三個로 破壞되어 있음)로서 下幅一·
 九尺 上幅〇·八五八尺 高一·四一尺 圓孔徑二·二九寸이며 구멍
 의 現深二尺一寸이라는바 이塔의 相輪이 石製라 한다면 그 固定方法
 에 特別한 用意과 裝置가 있었을 것이다.

註二 彌勒寺 石塔에서 方形椽柱를 推定하고 相輪을 金屬製로 말한 것은
 藤島亥治郎教授였다. (同氏著 朝鮮建築史論——益山彌勒寺條)

註三 中央에서 二片으로 分斷되었는데 高十一·五cm 徑十六cm 圓孔徑
 三·二cm 周圍에 複瓣蓮花文를 사졌다. 후시 仰花石인가 한다.

註四 以上諸塔相輪은 古蹟圖譜 第四冊 및 文教部發行 國寶圖錄第五輯
 石塔篇 參照

註五 天沼俊 一日本建築史圖錄第一卷三十八圖 相輪을 네 四個處에 風鐸
 을 달았던 痕跡이 보인다 이 石製相輪과 同一하다.

註六 百濟威德王十五年(日本崇峻天皇元年) 鑄盤博士將德白味淳의 渡日을
 말하는바 그의 任務는 塔相輪製作으로 보인다.

註七 三國遺事 卷三 皇龍寺九層塔條 이塔高를 記하여 「鑄盤已上高四十
 二尺 已下一百八十三尺」이라 하였는데 附點은 相輪高를 가르킨다.

註八 日本木塔에 사용되었던 奈良時代 石造相輪으로서는 奈良縣 山村
 廢寺 和歌山縣 三栖村廢寺 兵庫縣 多田廢寺 등에서 九輪이 出土하고
 있다. 그중 山村廢寺에서는 七個以上の 九輪(徑八〇cm)과 四個의
 椽柱(徑三〇cm 厚四·五cm의 円筒으로 高四四~二六cm의 各種)과
 「露盤」이 發見되고 있다.

註九 杉山信三著「朝鮮의 石塔」
 註十 拙稿「弘濟洞沙峴寺址五層石塔(郷土지술) 第十一號」
 註十一 安東邑內의 埵塔 兩基에서 도 모두 金屬相輪의 存在를 傳하고 있
 다. (永嘉誌參照)

〔附記〕(1) 新羅相輪樣式을 보이는 石彫品으로서는 慶州 栢栗寺 및 慶
 博所藏의 塔彫方柱石(出稿「新羅柱塔片本誌五卷六·七號」) 및 慶
 州 南山塔谷(慶州 南山의 佛蹟) 및 栢栗寺 磨崖塔形參照

(2) 二石塔相輪을 固定하기 위한 塔頂의 椽柱孔樣式으로는 圓
 形이 通式이나 간혹 方孔을 볼수 있으니 上引한 서울市沙峴寺
 址五層石塔이 그러한 慶博所藏의 新羅屋蓋石에서도 볼 수 있
 다. 埵塔에 있어서도 椽柱가 方形임은 松林寺塔의 경우가 그러한고 安
 東新世洞塔 또는 同一直面塔에서 同一하였음을 推定할수 있다.

昌原佛谷寺 毘盧舍那佛

鄭 永 鎬

慶南昌原郡上南面大方里 飛音山 南麓에 南向하여 造營된 이 寺刹에는
 一柱門 不二門 大雄
 殿과 寮舍, 數棟의
 附屬建物이 있는데
 住持 林琥山(六一歲
 氏)말에 依하면 이곳
 一帶는 廢寺址였는
 데 이 절은 約三〇
 年 前에 세워진바
 라 한다. 以前에는
 現大雄殿자리에 臺



座中間部까지埋沒된石佛坐像一軀가 오래前부터部落民들의信仰佛로 있어서 이곳을 一名「부처골」이라稱하였는데 그후佛像臺座의埋沒部分을收拾하여 大雄殿의 主尊으로 奉安하고 現在의佛谷寺를이룩하였다는바 여기서 寺名의 由來도 짐작된다. 한편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三三三頁에 이곳 坐像에 對하여 若干의 記錄(註)이 있는데 內容으로 보아 前述한佛谷寺大雄殿主尊佛이 바로 이 坐像이며 따라서 三〇年前 建立된佛谷寺의 由來도 明白하다 할것이다. 現在 大雄殿 柱礎石中 四石이 古式으로서 一邊長 六〇cm의 方形中央에 四分圓의 물딩과 圓座(徑三五cm)가 마련되어 羅代의 手法으로 注目되었다. 또 大雄殿層階石으로 使用되고 있는 塔石一枚가 調査되었는데 이것은 兩隅柱와 中央一撐柱가 刻出된點으로 이루어 보아 石塔下基面石으로 짐작된다(全長一九五cm 全高三四cm 隅柱幅 二一·五cm 撐柱幅 一二cm 撐柱高 二〇cm)

本尊佛인 坐像은 灰白色의 花崗石材이며 結跏趺座한 毘盧舍那佛이다. 굽은(太彫) 螺髮의 頭頂에는 큼직한 肉髻가 있고 兩眉間에는 白毫孔이 있으며 목에는 三道가 뚜렷하다. 兩耳下端에 若干의 磨損이 있을뿐 兩眼, 口鼻, 等 完全하다. 굳게 다문 口脣에는 微笑가 어리었고 양볼에는 살이 적으면서 밑으로 두턱이 젖는데 全體的인 印像이 溫柔한 相好라 할 것이다. 法衣는 通肩으로서 兩腕에 걸쳐 무릎을 덮었고 背面에도 衣文이 있으며 臍前에는 裙衣의 結帶가 보인다. 가슴이 堂堂하고 衣文이 流麗하며 均衡잡힌 優作이나 彫刻手法에서 若干 纖弱에 흐른點으로 보아 年代는 羅末로 推定된다. 臺座는 上, 中, 下臺로 完全히 具備하였으나 大雄殿 建築時 坐像만을 奉安하고 臺座各部는 別途로 法堂前庭에 塔으로 쌓아 올려놓았다. 筆者가 調査時 寺刹側에 建議한바 곧 原形대로 復原하겠다는 確答을 받은바 있으며 또 自己네들의 無智한 所行이었음을 自認하는것을 目擊하였다. 下臺石은 八角으로서 各面眼象內에는 一面만 花瓣이코 그外 七面에는 모두 꾸부린 獅子를 陽刻하였으며 그위에 八角 伏蓮臺石을 놓아 下臺를 構成하고 있다. 八角마다 一瓣式 八瓣의 流麗한 蓮瓣을 彫刻한 上面에 小, 中, 一段式의 반침과 一段의 큰 괴임이 마련된 위에 中臺石을 받고 있는데 八角 各面마다 隅柱가 表現되어 있고 坐

像一軀式을 陽刻하였다. 都合八軀 모두가 圓形頭光이 있으며 合掌한 像或은 持物이 있는 像等 各異한 容態이다. 上臺石은 圓形의 仰蓮石으로 下面에 中, 小, 一段의 角形반침과 四分圓의 물딩이 마련되어 있으며 仰蓮은 重瓣으로 各蓮瓣內에는 花瓣으로 다시 彫飾하였다. 上, 下臺의 蓮瓣手法이 豊麗함과 中臺各面坐像의 端雅한 彫刻이 더욱 注目을 끌었다. 實測值는 cm : 坐像高 一〇三 肩幅四八 膝高一八 下臺八角 一邊長四一·五 坐像頭高 三三 胸幅三三 膝幅七六 下臺八角 高三 下臺伏蓮石 一邊長三六·五 中臺石高 二〇·五 上臺石高 八五이다. 以上에서 볼때 臺座上에 坐像이 奉安되는 原形을 하루라도 速히 이루었으면 좋겠다. 臺座의 各部도 磨損하나 없는 完全品임에 이 石造臺座위에 保存이 良好한 大雄殿의 坐像을 安置하고 本尊으로 奉安되면 貴重한 또 하나의 石造毘盧舍那佛의 一例가 될것으로 믿는다.

註 「寺名由來共ニ不明 石垣ヲ遺ス 石佛ハ一尺六寸ノ臺上ニ靜座セル座像ニシテ高サ三尺四寸完全精巧ナリ」라 있다. 여기서 二尺六寸의 臺上」이라하여 이것은 下部의 埋沒을 뜻한다 할것이다.

慶州 皇吾里古墳整理調查概要

秦 弘 燮

文教部 文化財管理局에서는 慶州地區埋藏 文化財 整理調查計劃에 따라 그 第一次事業으로 慶州 皇吾里 · 皇南里의 古墳調査를 하게 되어 調査委員四人과 補助員 十一人이 委囑되었다. 委員은 金元龍(서울大) 秦弘燮(梨大) 金英夏(慶北大) 尹武炳(國博) 諸氏이고 補助員은 委員이 所屬된 機關에서 選拔되었던 것이다. 委員들은 지난 七月 二十一日 現地에 會合하여 調査對象의 古墳을 選定하였고 發掘方法은 各大學에서 一基乃至 二基를 分擔하기로 方針을 세웠다. 여기 尹武炳委員은 參席하지 않아서 結局 調査는 三個大學에서 分擔하게 되었다. 分擔한 對象古墳은